



백투더

클래식

그룹 토의 질문집

산책길 기독교영성고전학당

spirituality.co.kr / 2015. 9. 15. / 1st Edition / 발행\_이강학 / 편집\_권혁일 / 비매품

## 독자들에게

이 책자는 독자들께서 《백투더클래식》(예수전도단, 2015)을 독서 모임, 청년부 소그룹 모임, 교사 모임, 구역/셀 모임 등의 그룹에서 함께 읽고 나눌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각 장마다 3개의 질문이 있으며, 각 장의 저자들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질문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질문 1 :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질문,
- 질문 2 :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질문,
- 질문 3 : 독서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내용의 적용과 실천을 돕는 질문

그룹 인도자께서는 자신의 그룹의 형편에 따라 질문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비매품이며 인쇄,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산책길 기독교영성고전학당’에 있습니다.

‘부록’으로 이종태 연구원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다그 함마르셀드”를 실었습니다. ‘영성 고전 독서’가 한 위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백투더클래식》에 소개된 각 장의 저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편집자 권혁일에게 이메일(editor@spirituality.co.kr)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모임에서 나누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01 큐리오시티 이종태

1. 호기심이 '안목(눈)의 정욕'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2. 위 에세이가 말하는 경이(wonder)의 영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과 연결지어볼 수 있을까요?
3. 시편 19:1-6을 읽고, 세상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시인의 믿음과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 02 <퍼펙트 센스>와 영적 감각 남기정

1.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에 어울리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2.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떤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믿음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혹은 그 믿음이 더 커지면서, 전과는 달라진 점들을 되짚어 봅시다.
3. 에베소서 4장 17-24절을 읽어 봅시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 버리는 일과, 새 사람 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의 욕망과 감각(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묵상해 봅시다.

## 03 신 나는 맞바꿈 :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믿음을 말하다 권혁일

1. 지금까지 살면서 “신 나는 맞바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문장의 괄호를 채우고 그 내용을 서로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봅시다. 만약 “신 나는 맞바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의 ( )와/과 주님의 ( )을/를 맞바꾸었습니다.”

2. 이 글을 통해 ‘믿음’과 ‘자유’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이 갖고 싶은 믿음이나 누리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까?
3. 57쪽의 루터의 기도문을 참조하여 자신의 기도문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돌아가며 기도합시다.

## 04 렛잇고? 렛잇샤인! : 아빌라의 테레사와 『영혼의 성』 박세훈

1. 자신의 영혼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만약 자신의 영혼을 어떤 대상에 비유할 수 있다면 떠오르는 대상이나 이미지가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2. 하나님께서 각자 안에 100%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면 자신의 영혼은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3. 아빌라의 테레사가 제시한 '영혼의 성' 이미지로 자기 영혼을 그려봅시다.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이미지가 그려지면 자신이 또는 자신을 가장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상상하여 자신 앞에 세워봅시다. 이후에 이 경험에 대해 그룹이나 짝을 지어 이야기 나눠봅시다.

## 05 신앙, 끝없는 목마름의 여정 : 그레고리우스의 에펙타시스 임택동

1.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휴대폰, 컴퓨터 등의 물건들 중에서 처음에는 손과 눈이 수시로 가면서 좋아했지만 어느 때부터 무덤덤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2. 혹시 요즈음 신앙생활이, 또는 하나님이란 분이 무덤덤하게 다가와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전혀 생겨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3. 자기 나름의 하나님께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분의 권위 앞에 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길들인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sup>1</sup> 이처럼 '타자'이신 낯선 하나님을 만나며 관계를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낯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고도 놀랍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활기찬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

<sup>1</sup> 박대영, 《목사의 여정》(성서유니온, 2013) 참조.

## 06 하나님과 ‘연애’하기 : 잔느 귀용의 『아가서 주석』 정승구

1. 이 글을 읽기 전에 아가서를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읽으셨다면 아가서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혹 없었는지, 읽어 보았다면 어떤 구절이나 느낌이 기억에 남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아가서의 성적, 혹은 육체적 표현이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불경하게 취급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가서를 교회와 성도 간의 공동체적 관계로만 해석한 오리게누스의 해석에 공감하십니까?
3. 신앙 생활을 ‘하나님과 연애하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신의 신앙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07 '어머니' 하나님 : 노리치의 줄리안 과 『계시』 이종태

1.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을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3. '개암 비전'의 영적, 신학적 의미와 통하는 성경구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구절(들)이 들어가는 기도문을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 08 로그인 클라우드 : 로렌스 수사와 하나님의 임재 박세훈

1. 우리 주위를 뒤덮는 통신용 주파수나 무선 인터넷망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얼마나 될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2. 로렌스 형제는 일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위대한 천상의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이 개인의 영적 삶과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3. 로렌스 형제가 제시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120쪽)을 잠시 동안(5-10분 정도) 실천해 봅시다. 이후 그룹이나 짝을 지어 임재 연습의 경험이나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해 나눠봅시다.

## 09 존 웨슬리의 ‘영적 독서를 위한 조언’ 남기정

1. ‘신문을 읽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 “변혁적 책 읽기”(Reading for transformation)의 경험에 대해 말해봅시다. 성서나 영적 고전을 읽고 삶의 변화를 가져본 경험을 이야기 해봅시다. 그 때의 과정을 되돌아 봅시다. 그때 어떻게 읽었으며 그 읽기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 지금 나의 성경 묵상 실천은 어떠합니까? 그것과 웨슬리의 조언을 비교해 봅시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나의 실천에 보완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10 회심은 '강철우리'를 깨뜨린다 :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조나단 에드워즈

권철우

1.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 속에서 갇혀 끊임없이 반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당신의 삶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3. 만약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 11 굿 딜(Good Deal)? : 에크하르트의 눈으로 본 소비주의 영성 권혁일

1.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VIP, 곧 ‘매우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이다.”(164쪽)라는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자신이 그런 “VIP”라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에크하르트는 성전 안의 장사꾼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상인들”입니다(161-162쪽). 혹시 당신도 이런 “좋은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3. 오늘날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교회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향을 씻어내기 위해 “청소부 예수”께 드리는 자신만의 짧은 기도문을 164쪽의 에크하르트의 기원을 참조하여 적어 봅시다.

## 12 가난한 부인과 '가난 부인' : 프란치스코와 '가난의 영성' 이강학

1. 최근에 보거나 들었던 가난한 이웃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2.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심지어는 가난의 덕을 “가난 부인”(Lady Poverty)으로 의인화하여 묘사합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영성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3.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가난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실제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까?

## 13 사막의 꽃 :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 임택동

1.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이나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처럼 자기가 자란 곳, 익숙한 곳, 또는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 때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2. 요즈음 본인의 신앙 상태를 돌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스로 취한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3. 사막 수도자들은 지금의 자리에 위기의식을 느껴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나름의 떠남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떠날 자리는 어디이고 가야 할 나의 사막은 어디인가요?

## 14 고상한 욕망 : 지라르의 렌즈로 본 회퍼를 읽다 이경희

1.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바라는 것, 욕망이 무엇인지 나눠볼 수 있을까요?
2.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구조(욕망하는 나 - 라이벌 - 갖고 싶은 대상)에서 '필자'는 "우리네 인간사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하는 '모방'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196쪽)고 말합니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열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방하여 욕망하는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3. 그럼 당신은 좀 더 고상한 욕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 타락한 교회 밖에서 길을 찾다 : 조지 폭스의 ‘침묵’과 존 버니언의 ‘이야기’ 정승구

1.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이, 혹은 주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제도적인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2. 외부로부터 독립된 ‘자신 안의 내면의 빛’을 통해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다른 외부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기초해 있습니까?
3. 예화나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 16 영성 생활은 리듬이다 : 『베네딕트 의 규칙서』와 규칙의 재발견 이강학

1. 당신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키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 규칙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수도자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상 속에서 지킬 규칙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위한 규칙과 성무일도 규칙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3. 규칙을 리듬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규칙들을 어떻게 일상의 리듬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7 공감을 넘어서 긍휼로 : 안토니우스 와 ‘긍휼의 영성’ 임택동

1. 본인의 영적 건강과 성장에 가장 유익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실행하고 계시는 신앙 훈련이 있습니까? 이 훈련이 본인에게 어떤 식의 도움이나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나요?
2.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각양각색의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고통을 접하면서 먼저 어떤 마음이 됩니까?
3. 안토니우스의 영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긍휼의 길을 그대로 견도록 하는 살아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영성 훈련이 나 자신을 위함을 넘어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긍휼의 길로 발걸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 18 넘치는 부, 메마른 사랑 : 바실리우스와 ‘부의 공공성’ 박세훈

1. 교회 안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이에 대해 고민했거나 또는 좋은 결론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두 가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3. 주변에 사랑과 구제를 흘려 보내야 할 지체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봅시다.

## 19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하라 : 길 선주·이기풍의 예언자적 영성 권혁일

1. 지금까지 자신이 실천한 정의로운 행동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나누어 봅시다.
2. 이 글을 통해 '정의'와 '평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정의'나 '평화'에 관해 다른 책을 읽은 것이나, 강연을 들은 것이 있다면 함께 비교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3. 이기풍에 의하면,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이득보다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20 순수 기독교로의 귀환 :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 이경희

1. '순수'라는 단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나요? 이 단어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영혼의 순도는 몇 점 정도일까요? 한국 교회의 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왜 디트리히 본회퍼는 “비종교적 기독교”를 외쳤던 걸까요?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개념이 나의 삶에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3. 당신이 생각하는 ‘순수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 21 교회여, 사교클럽에서 벗어나라 : 마틴 루터 킹의 『옥중서신』 남기정

1. ‘하나님의 의’와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2.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는 킹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선교를 되돌아 봅시다. 새롭게 떠오르는 선교의 영역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3. 킹 목사님은 교회의 사회 정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와 닿는 지적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예들을 떠올리며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숙고해 봅시다.

## 22 김교신과 ‘민본’의 기독교 이경희

1. '기독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르나요? 기독교? 약자? 보수? 진보? 등. 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2. 김교신은 "신앙생활은 기술이 아니라, 천하의 대도, 공의를 활보하는 생활입니다. '망하면 망하리라'는 각오로써."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기술자(설교 잘하는, 기도 잘하는, 봉사 잘하는 등)를 만들어 내나요, 아니면 김교신의 삶과 글처럼, 약자들과 함께 공의를 흐르게 하는 단독자(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리고 바로 선 존재)를 세우고 있나요?
3.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약자들의 소리를 담아내는 민본의 기독교의 모습을 구현해내고 있습니까?

## 23 힐데가르트의 '비리디타스'와 여성 리더십 정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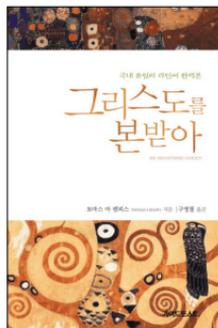
1.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여성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에게서 남성들, 남성 목회자들과는 다른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모습이 있었나요? 당신의 교회에 여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이 기대하는 여성 목회자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2.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과 자연 등이 피해를 받고 억압받았다고 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기독교가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자연과 만물이 다같이 건강해야 한다는 힐데가르트의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부록.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 다그 함마르셀드<sup>2</sup> 이종태

1961년 9월 18일 세계를 놀라게 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 콩고 내전을 끝낼 평화협상을 중개하러 가던 유엔 사무총장의 비행기가 아프리카 밀림 상공에서 추락, 그를 포함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고/사건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심증은 충분했다. 그가 이루려고 애쓰는 평화를 달가와 하지 않는 세력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증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그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다. 존 F. 케네디가 '금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평했을 만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으며, 사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무총장의 '내면세계'였다.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서류가방에는 그가 그 살벌한 갈등의 현장 한복판으로 가면서 들고간 두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한 권은 <성서>였고, 다른 한 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였다.



'성직자 같은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그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은 다그 함마르셀드(Dag Hammarskjöld: 다그 함마술드)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는 그의 가방에서 성경이 발견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의외의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니. 현대 세계의 치열하고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유엔 사무총장의 가방에 중세 수도사의 책이라니. 성경과 더불어 발견된 책이

<sup>2</sup> 이 글은 2013년 3월, 산책길 팀블로그(<http://spirituality.co.kr/141>)에 처음 게재되었다.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기독교 현실주의와 정치 문제》 같은 책이었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니.



혹, 그 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 서점 같은 데서 어떻게 하다 집어 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물증'이 있다. 바로 그가 남긴 일기장이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지인들은 뉴욕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1920년부터 죽기 며칠 전까지 그가 기록한 일기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후에 "Vägmärken(Markings)"라는 제명으로 (편집)

출판된 그의 일기는 세계 곳곳의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며 "할 수만 있거든"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분투했던 한 고귀하고 유능한 활동가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그 내면 세계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국제 문제도 유엔 활동도 아니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일, 즉 요즘 말로 '영성'이었다. Markings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들은 시편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의 저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20세기 중반 이후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영성고전이다. '현대인들'이—'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이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이 표방하는 영성을 (현대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금욕적, 수도원적, 중세적, 개인구원중심적, 도덕적, 율법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고전'에 대한 비판적(critical) 자세는 장려할 만한 태도다. 그러나 더 장려되어야 할 태도는 고전을 비판적으로 '내 것 삼음'(appropriation) 줄 아는 읽기 능력이다. 함마르셀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정말 '읽었던' 사람이

었다. 지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집 침대 옆 탁자에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놓여 있었고, 그의 일기장이 발견된 곳도 그 탁자 위였다.

개명한 현대에 더는 맞지 않는 수동적 태도를 장려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함마르셀드가 그의 일기장에 인용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고 견고히 서 있는 이들이니, 교만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이 풍성히 받은 모든 좋은 선물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며, 따라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II, X, 4.)

이 구절을 또박또박 옮겨쓴 뒤 함마르셀드는 여백에 "1953년 4월 7일"이라고 적어 넣었는데, 그 날짜는 바로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날 짜였다.

초인적 지혜와 인내, 또 용기가 요구되는 평화협상 자리에 가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얼마간 짐작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말 그 일의 막중함과 어려움, 그리고 그 일에 따르는 유혹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에 더욱 공감할 수 있으리라. / 산처럼